

총회 소식지 1

친애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저희들은 지난 4 월 25 일, 주일부터 성바오로수도회의 제 9 차 총회를 위해 이곳 아리차의 스승 예수의 집에 모여있습니다. 전세계 각처로부터 이곳 아리차에 보내주신 축하 인사와 기도들에 대해 사랑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다룰 주제는 “ 받은 선물을 되살리십시오. 바오로 카리스마 백 년에 대한 창조적인 신뢰” 라고 하는, 저희들에게 자극을 주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이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전구해 주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세계 각처에서 모인 저희 대의원들은 모두 예수네 명에 달합니다. 공식적인 명단에 나와 있는 이들 중 전임 총원장 피에트로 캄푸스 신부님은 건강 상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 비자” 문제 때문에 오지 못한 콩고의 길버트 알레믹 부제의 자리는 프란치스코 캄푸스 신부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알바노 호수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의 기후는 습도가 높고 또 요 며칠 간 비가 내리다가 해가 뜨다가 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후도 저희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우정과 형제애의 분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총회의 임무들을 머뭇거리기 없이, 매우 집중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총회 대의원들은 어제, 그러니까 4 월 28 일 수요일에 몇 가지 근본적인 주제들을 깊이 있게 살펴 보고 숙고하는 총회 도입 부분을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커뮤니케이션 세계에 있어 우리 사도직의 현실과 우리 공동체를 검토하고 바오로인을 사도이자 커뮤니케이터로 규정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주제들이 제시된 뒤 참석자들은 수도회의 공식적인 세 가지 언어(이태리어, 영어, 스페인어)권 별로 나뉜 일곱 연구 그룹으로 각자 모였습니다. 저희가 숙고하고 논의한 이 자료들은 우리 총회 모임의 사진 및 동영상과 함께 www.paulus.net/cg2010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여정을 마친 뒤인 어제 오후, 즉 4 월 28 일 15 시에 총원장 실비오 사시 신부는 성바오로수도회의 9 차 총회 개막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후 처음으로 부과된 업무는 총회 운영 규칙을 읽고 토론하고 승인하는 일이었는데 이 규칙은 총회의 업무를 올바른 과정을 통해 이끌어 가는 데 중요한 규칙이며 70 가지의 세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 총회 조직을 구성하는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이 선거에 4 월 29 일 목요일 아침 시간이 모두 할애되었습니다. 투개표 위원으로 총회 참석자 중 가장 연소한 두 사람, 옥타비오 피퀘레도 신학생과 호세 카를로스 누네스 신부가 선출되었고 총회사무국장으로는 후안 안토니오 까레라 신부가, 총회사무국 임원으로 발디르 호세 카스트로 신부, 첼소 고딜라노 신부, 카를로 치비엔 신부가 선출되었으며 홍보 담당 비서로 안토니오 리졸로 신부가, 서기로 라파엘 곤잘레스 신부와 미켈레 레오네 신부가 선출되었습니다.

총회는 4 월 29 일 오후에 관구 장상들의 보고로 속개되었습니다. 막 구성된 총회사무국은 이어지는 일정 동안 해야 할 업무들을 조정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총회 대의원들이 평온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아래서 창립 100 주년을 맞는 바오로 카리스마,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을 되살리는 데 참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청합니다.

아리차(로마), 2010 년 4 월 29 일

홍보 담당 비서 안토니오 리졸로 신부